



KOREA-EU RESEARCH CENTRE



유럽 연구 경력 개발을 꿈꾸는 한인 이공계 석박사생을 위한 멘토링 간담회

# KERC YOUTH FORUM



2024.11.30.(토) 10:00~15:00

델프트 공대(TU Delft)

Applied Sciences (TNW/AS) Van der Maasweg 9, 2629 HZ Delft



주  
최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한-EU 연구협력센터

*"A Bridgehead to enhance Korea-EU R&D Cooperation"*

한-EU연구협력센터(KERCC)는 2013년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과학기술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ERCC는 한국과 유럽의 연구자, 연구 기관 및 정책입안자 간의 정보교류, 네트워킹, 파트너탐색 등 연구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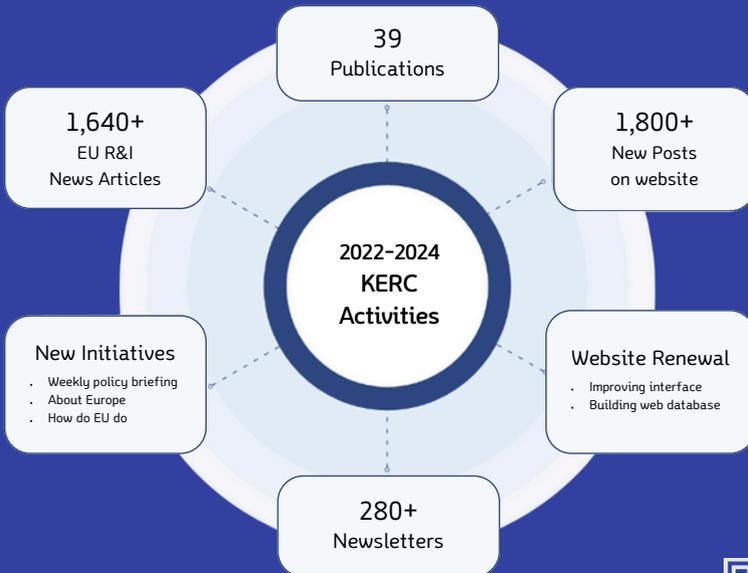
## MAIN ROLES

Korean Liaison  
Office to the EU

National Contact  
Point Coordinator

KR-EU Research  
Cooperation  
Platform

Korean Observatory  
on EU R&I



KERCC 페이지 바로가기 >>>



# 2024 KERCC Youth Forum

KERCC는 한국 젊은 연구자들의 유럽 연구경력 경로개발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Youth 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개최되며, 정보 공유, 경로 소개, 멘토링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10:00~10:30	Networking Reception	
10:30~10:35	Welcome Speech	
10:35~10:45	Introducing KERCC	
10:45~10:55	유럽의 과학기술 연구혁신 전략	
10:55~11:40	Path-finding Session	정지원 TU Delft 산업디자인공학과/Erasmus 대학병원 조교수
		허인하 Johnson & Johnson innovation medicine 수석 연구원
		김민재 UCL 천문학 연구원 (KERCC 서포터즈 우주항공 분야)
11:40~11:55	Special Session	박솔잎 스페인 국립 암 연구센터(CNIO) Junior Group Leader
11:55~12:10	Coffee Break	
12:10~13:30	Mentoring Session	<u>Moderator</u> 손민 Bundeswehr University Munich 열역학 연구소 연구원 (KERCC 서포터즈 우주항공 분야)
		<u>Panel</u> 오다영 Ziphios Vaccines 연구원 임이랑 TU Delft 도시공학/지질학과 박사후 연구원 정지원, 허인하, 김민재, 박솔잎
13:30~15:00	Lunch & Networking	



▲ 2022 Youth Forum



▲ 2023 Youth Forum

# 연사 소개



## 정지원

- ▶ 델프트 공대 산업디자인공학부 조교수 및 에라스무스 대학 병원 외과 과학 연구원 겸임
- ▶ KAIST 국가장학생으로 석사학위 취득 후, 델프트 공대 산업디자인공학 박사학위 취득
- ▶ CardioLab 공동 디렉터, Healthy Society Consortium 연구 책임자 등으로 활동 중

## Q&A

**Q.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유럽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협력에 기반한 연구의 가치를 깊이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쟁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면, 네덜란드는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네덜란드의 신념을 저 역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Q.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A.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누군가 시키는 일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랑보다는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익히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유럽 생활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유럽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ASML 회장과 1시간 동안 대담을 나누고 이후 LinkedIn을 통해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경험입니다. 또한, TU Delft 이 사장, 총장, Erasmus MC 총장과 자유롭게 개인 대담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격이 없이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연사 소개



## 허인하

- ▶ Johnson & Johnson Innovation Medicine 제약 회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
- ▶ 네덜란드 Hubrecht Institute 박사후연구원
- ▶ 서울대 생명과학부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 Q&A

### Q. 연구하시는 분야의 국내 연구자에게 유럽(혹은 특정 유럽국가)은 어떤 곳인가요?

A.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유럽/네덜란드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기술자(technician) 시스템, HR 등이 잘 되어있어서 연구자들이 다른 일들 보다 연구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취업 환경은 네덜란드/벨기에(유럽내에도) 회사와 같이 쓸 수 있는 연구비들이 여러 종류 있어서 연구 중에 회사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학사나 석사 때 회사에서 인턴쉽을 해야만 하는 학과들이 많이 있어서 일찍부터 회사들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Q. 국내 연구자가 유럽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일까요?

A. “저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유럽 연구소나 대학들, 연구 환경 등이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장애 요소였고,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나라들이 많아서 언어가 두번째 장애 요소였습니다.”

### Q. 유럽의 연구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A. “왜 특정 연구소나 랩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전의 학,석사 혹은 박사 과정 중 쌓아왔던 지식이나 기술들을 지원하는 랩이나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싶은지 대한 대략적인 계획(적극적인 태도)이 중요합니다. CV,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연사 소개



## 김민재

- ▶ 런던 UCL 천문학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 ▶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및 쾰 대학에서 천체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우주 연구소 ESA 박사후연구원
- ▶ KERC 서포터즈 우주항공 분야

### Q&A

**Q.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유럽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럽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 조건을 이수하여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일정 영어 점수가 있는 경우 등 최소 조건을 충족하면 입학 허가증이 나온다는 사실이 마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같이 느껴졌습니다.”

**Q.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일까요?**

A. “저는 단언컨대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회에서는 열린 토론과 추후 협력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설픈 영어 실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그들과 여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억울해도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전공의 탁월성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Q. 유럽에서 연구경력을 개발하고 계시는 지금, 결정에 만족하시나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저는 매우 비싼 물가를 제외하면 만족합니다. 한두세기가 지났을 때 교과서에 쓰여질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천문학자들과 일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당연히 유럽에서 더 좋은 천문학자들과 평생 천문학에 대해서 토론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 연사 소개



## 박슬임

- ▶ 스페인 국립 암 연구센터(CNIO) Junior Group Leader로 재직중
- ▶ 스페인 유전체조절센터(CRG) 박사후연구원
- ▶ 포항공대 박사학위 취득

## Q&A

**Q. 국내 연구자가 유럽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일까요?**

A. “첫째, '미국에 비해 유럽이 더 나은 선택일까?' 하는 점입니다. 둘째, '비영어권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도 연구 환경에서는 대부분 영어가 공용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연구소와 대학은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언어 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Q. 연구하시는 분야의 국내 연구자에게 유럽은 어떤 곳인가요?**

A. “유럽은 빅데이터 기반 암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탄탄한 인프라, 활발한 국제 네트워크, 산학 협력의 기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유럽의 장점은 이러한 연구 인프라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각국 간의 긴밀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더욱 확장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Q.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A. “항상 낯선 곳으로 향하는 첫 걸음은 두렵고 주저되기 마련입니다. 유럽이라는 곳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모여 있어 한층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설렘에 집중한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경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패널 소개



## 손민

- ▶ DLR 우주추진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 현재 뮌헨 소재 연방군대학교 열역학 연구소에서 근무 중
- ▶ 한국항공대학교 로켓추진 연구 박사학위 취득
- ▶ 재독과협 기계분과장을 맡고 있으며 유럽내 첨단 모빌리티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중

## Q&A

**Q.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유럽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항공우주를 전공으로 한국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해외진출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야의 특성상 국방 쪽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어, 갈 수 있는 국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의 지원자격에 대부분이 시민권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미국보다는 비시민권자에게 개방적이면서 기술수준이 높은 독일에 최우선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Q. 유럽으로의 진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A. “본격적인 준비 및 지원 기간은 약 6개월이었고, 박사후연구원 채용 공고도 지원을 하였지만, 공고가 없더라도 가고 싶은 기관의 리더급 연구원들에게 자기소개서와 적극적인 진출 의향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공고 없이 이메일을 보낸 곳에서 긍정적 회신 이 왔고, 가고 싶었던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 첫 박사후연구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Q. 유럽의 연구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A. “독일의 경우 개인의 커리어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믿을 만한 동료의 추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추천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원자로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해외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패널 소개



## 오다영

- ▶ Ziphys 사의 Prophylactic team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
- ▶ 벨기에 겐트대 수의과대학 박사학위 취득
- ▶ 인천대 생물학 전공 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사학위 취득

## Q&A

**Q.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유럽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교환학생으로 벨기에 겐트 대학교에 온 계기로 유럽의 대학시스템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름을 느끼게 된 계기로 박사과정을 겐트 대학에서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박사과정 동안 유럽에서의 삶이 길게 보았을 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개인적인 삶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취업도 벨기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Q.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무엇일까요?**

A. “유럽에서는 발표나 회의가 많은데 벨기에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그룹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쳐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유럽경력개발 관련하여 그간 주변의 후배 및 동료들에게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이나 인상 깊은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A. “대부분 제 주위의 한국 연구자분들은 중사하고 있는 연구 기관 내에서 다른 외국인 연구자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며 동료들과도 트러블 없이 잘 지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위 후배들이 박사과정이나 취업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패널 소개



## 임이랑

- ▶ 델프트 공대 토목공학/지구과학부 박사후연구원
- ▶ 에라스무스 대학 도시 거버넌스 박사학위 취득
- ▶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석사학위 취득

## Q&A

### Q. 유럽으로의 진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A. “영국은 UCL, LSE, 카디프에 지원했고 네덜란드는 에라스무스에 지원했는데, 모두 합격하였고, 등록비와 생활비가 저렴하고 1년짜리 연구석사 프로그램이 있는 에라스무스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1년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연구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할 것 같아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석사 지원은 결심하고 1달 정도 걸린 것 같고 박사 지원도 결심하고 프로포절 준비, 합격통보, 집구하기, 출국이 3개월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 Q. 유럽에서 실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라고느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지금 연구분야인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는 인프라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지원 과제에 지원하고자 해도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 오고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프라 파트너들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인데 영어를 하긴하지만 생활영어 수준이고 업무는 네덜란드어로 하다보니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만큼 편해하진 않습니다. 또한, 평등한 문화이긴 하지만 대학 내 위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Q. 유럽의 연구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A. “성장 가능성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성향, 성격, 소통능력 등)가 지난 성과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KERC SUPPORTERS



KERC는 유럽 각지에서 활동중인 KERC 서포터즈를 통해 과기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유럽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수집, 분석 및 제공합니다.

## 서포터즈

- ✓ 유럽 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활동 중인 한국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현지의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짐
- ✓ 서포터즈는 유럽의 혁신적 연구/정책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 유럽 간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

## 활동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수소	첨단로봇 제조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

## 활동 내용



12대 전략기술 최신 정책 & 연구 동향



유럽 진출 경험담과 노하우 공유



유럽 연구기관 및 연구 환경 소개

현재 1기 KERC 서포터즈(2024-2025)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웹페이지에 12건의 12대 전략 기술 별 유럽의 연구 및 정책 동향이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의 연구 기관에 대한 소개와 유럽 진출 경험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서포터즈 모집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서포터즈 페이지 바로가기

